

2022년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긴긴밤 /루리/보름달문고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노든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2	그루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롤루 밀러/곰출판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다. .. 잡초 안에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알잡아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3	호수공원작은도서관/김연희	안녕 커뮤니티1/다드래기 만화/창비	사실 자기가 안해봐서 모르는 걸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말이 다 진짜는 아니야
4	푸른마을작은도서관/김진혜	시간을 파는 상점2 / 김선영 / 자음과모음	“두꺼비 같은 양서류가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지는 거야. 오존층이 뚫렸는지 여부는 양서파충류가 제일 먼저 감지하거든. 물과 땅이 죽은 곳에는 절대 두꺼비도 개구리도 없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 그다음 세대를 위해.”
5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불편한 편의점 / 김호연 / 나무옆의자	소주도, 그 소주가 담긴 컵도, 사내가 경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는 온기를 주는 물건도, 경만은 왕따였지만 이 곳에서만큼은 왕따가 아니었다. 이놈의 불편한 편의점이 한순간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경만은 VIP로 컴백한 기분이었다.
6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우종영/한성수엮음/메이븐	맞서 싸우지 않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부드럽게 우회할 줄 아는 것.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저 혼자 강하게 곧추선 나무가 한 여름 폭풍우에 가장 먼저 쓰러지는 법이다.
7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다산의 철학/윤성희/포르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삶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절망을 맞닥뜨린 다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8	예다움도서관/백정희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민음사	실컷 폭 쉬어라, 작은 새야. 그러곤 물으로 날아가 인간이나 다른새나 고기처럼 네 행운을 잡으려무나. 그가 말했다. 밤 동안에 등이 뻗뻗했고 지금은 통증까지 있었는데 새에게 말을 걸고 나니 노인은 힘이 솟았다.
9	책놀이터작은도서관/박지숙	다정한 것이 살아 남는다/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디플롯	종의 기원 1859년 초판에는 적자생존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자'라는 단어도 없다.

2022년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이향림	오직 토끼하고만 나눈 나의 열네 살 이야기 / 안나 회글룬드 글.그림/ 이유진 옮김/ 우리학교		“사람은 나이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진다.”는 할아버지 말씀도 그저 농담처럼 들리는 열네 살 아이의 얼굴은 어느 순간 사람에 가까웠다가 토끼에 더 가깝다가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내가 내 안에만 머물 수 있을 때 두렵지 않다.”는 아이는 과연 주변과 관계 맺기에 성공하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방황하는 아이를 보는 내내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며 자신과 타인을 똑바로 바라보는 아이는 비로소 다른 존재들을 인정하고 마주할 용기를 낸다. 안나 회글룬드가 그린 주인공 ‘열네 살인 나’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시기고 세상의 양면을 두루 예민하게 감지하는 ‘청소년 시기’ 그 자체다.
				“오늘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 나는 존재하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라며 다른 존재들을 똑바로 바라보는 아이는 자신과 자신,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잘 자라날 것이다. 작가는 힘들어하는 사춘기 아이에게 너만 힘든 게 아니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넨다.

2022년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해봄도서관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 정세랑 / 위즈덤하우스	생각해보면 살아 있는 상태가 너무 신기하지 않은지? 꼭 개인적 이야기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 지구가 초속 30킬로미터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온갖 동식물이 38억 년 동안 생겨났다 멸종했다 하며 보글보글 지내왔다는 것이. 우주는 죽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태 인데 어떻게 다들 살아 있지?
2	개인회원/손수정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 권김현영 /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지금-여기의 새로운 상식이 된 페미니즘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함께 구시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됩시다" 이 말은 최근 몇 년간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낸 의미를 함축한다. 페미니즘은 이제 소수의견이 아니나 새로운 시대의 공통상식이 되어야한다는 요청으로 불려 나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지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과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펼쳐져 있다.
3	개인회원/김경희	시를 읽는다 / 글 박완서, 그림 이성표 / 작가정신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4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무지개 아줌마 / 닐 그리피스 글, 주디스 블레이크 그림, 김진선 옮김 / 이숲아이	"나를 위해 온 마을을 무지개색으로 칠한 건가요?"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 박완서 / 세계사	제법 똑똑한 생각을 요즈음은 어린이까지도 할 줄 안다. 사람들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불쌍한 이웃을 보면 이런 똑똑하고, 지당한 이론 대신 반작용처럼 우선 자비심 먼저 발동하고 보는 덜 똑똑한 사람의 소박한 인간성이 겨울철의 따뜻한 구들장이 그림듯이 그리워진다.
6	책마실도서관	서영동이야기 / 조남주 / 한겨레출판	7편의 이야기가 가상의 지역 서영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집값, 부동산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시각차, 부모의 직업과 아이들의 교육,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선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애써 감추고 싶을 만큼 불편하지만, 그 속엔 내가 사는 곳이 나를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었으면 하는 현실적인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7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 고미숙 / 북드라망	백수는 노는 사람이다.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게 즐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하여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논다.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탐구한다. 세상이 스승이고 인생이 학교다. 하여, 이 앞의 지평선은 무한하다.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 그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알게 되리라. 삶은 삶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하루가 곧 일생이라는 것을.

2022년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박순선	동백꽃이 톡./김미희 글, 정인성/천복주 그림/토끼심	제주 4.3사건 관련 책입니다. 주인공 섭이가 동백꽃을 톡톡 놓아가며 누나와 마을 사람들의 흔적을 더듬어보며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날의 흔적을 따라가며 기억하게 합니다. 글보다 그림의 이미지로 그날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어 기억에 많이 남는 그림책입니다.
2	홍부네그림책도서관/김진희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리처드 T. 모리스 글, 르웬 팜 그림, 이상희 옮김/소원나무	그동안 여러 친구들은 저마다 따로따로 살아왔어. 여기 이렇게 함께 있게 될 줄 몰랐단다.
3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이영옥	책, 이게 뭐라고/장강명/아르테	나는 읽고 쓰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관성을 더 추구하며, 그래서 보다 공격적이고 반성적인 인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4	용강동작은도서관/손선미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심채경/문학동네	보이저는 창백한 푸른 점을 잠시 응시한 뒤, 다시 원래대로 기수를 돌렸다. 더 멀리, 통신도 닿지 않고 누구의 지령도 받지 않는 곳으로. 보이저는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진할 것이다. 지구에서부터 가지고 간 연료는 바닥났다. 태양의 중력은 점차 가벼워지고, 그 빛조차도 너무 희미하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출고 어둡고 광활한 우주로 묵묵히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어른이 된다.
5	꿈틀어린이도서관/이소영	내가 제일 무섭지/이승아 글,그림/노란상상	사람이 하늘이다. 아이들은 탐관오리 앞에 우뚝 서서 힘차게 말했다. "무섭지, 무섭지!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섭지!"
6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윤숙	행복을 나르는 버스/맷 데라페냐 글, 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비룡소	시제이, 저길보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나 있단다. 늘 무심코 지나치다보니 알아보지 못할 뿐이야.
7	생글작은도서관/이미란	수렁속에서도 별은 보인다/강준만/ 인물과 사상	<나의 망가진 모습을 매일 되돌아보라> 중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해도 '인정욕구'나 '도덕적 우월감'을 자제하는 겸손한 태도로 소신을 실천해야한다. 타인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망원경으로도 보지 않으려는 독선과 오만이 문제다.
8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 놀자/이지인	심신단련/이슬아/헤엄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나쁜 일이 우리를 온통 뒤덮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애썼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어떤 일에서든 고마운 점을 찾아내는 이들을 기억했다. 사랑은 불행을 막지 못하지만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9	개인회원/김현실	어떤밤은 식물들에 기대어 울었다/이승희/폭스코너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아저씨가 임자였네. 애가 시집가기 싫으면 이렇게 숨어서 절대 저를 안 보이는데, 아저씨가 한눈에 찾았으니 아저씨께 시집가는 게 맞네요." 주인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한참을 웃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앵두나무는 내게 시집을 왔다.

2022년 3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정원가의 열두 달/카렐차페크/펜앤필독약	정원을 가꾸는 정원가의 마음이 작은도서관을 마주하는 우리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제 씨앗들이 새싹을 치켜드는 3월이니 우리들도 정원가의 열두 달 처럼 한 달 한 달, 올 한해 잘 살아보아요.
2	해바라기도서관/박면우	마음먹기/글:자현. 그림:차영경/출판사:달그림	시작이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보면 위안이 되는 그림책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은 맛이 달라진대요"
3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권민정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온유/돌베개	어느 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야. "네가 죄인이다. 살인하고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게 죄인이다." 이거 깨닫고 엄청 울었어요.
4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 /김은정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정유선 글/다락원	코로나19가 곧 사라질지, 더 오래 사람들을 위협할지, 독감처럼 약해져서 사람들 곁에 머물지, 아직 누구도 이 끝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세상을 준비할 때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생활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같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의 힌트가 될 20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4차 산업 혁명으로 앞당겨진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삶과 정치, 교육, 경제와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과학 기술과 우주 개발에 대해 알아보아요. 미래를 위해, 함께 꿈꾸는 삶! 이 책을 읽고 논의해 보아요!
5	범지기9단지 달빛도서관/이주희	시집살이 時집살이 지은이:박점례.안기임.김막동.도귀례.김점순.양양금.윤금순 등 도서출판 북극곰	이런재미 저런재미. 서럽다.
6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윤나영	동물농장/조지 오웰/민음사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고전 중 하나인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 최근 여러 독서클럽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책장 구석에 그냥 존재하고 있던 그 책을 저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아직 절반 밖에 읽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술술 넘어가는 책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전은 일단 어려워야 하는데 등장 인물이 농장 동물들이어서 그런지 흥미진진하네요. 마르크스, 스탈린, 트로츠키를 몰라도 과거의 먼나라 정치사 아니 가까운 우리 정치를 잘 몰라도 이해되는 동물사회의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며, 같이 고민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동물 농장들에게 인간은 너무 사악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자연방사 동물복지 계란을 사왔습니다. 고전은 이렇게 단순하게도 아니면 독재와 혁명을 논할 정도로 깊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설과 줄거리는 교과서에도 있지만 직접 읽어보고 각자의 깊이로 느끼기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같이 읽어 보면 어떨까요??